



세계연합신문



제 168 호 (2019년 10월 15일 창간) |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www.wunionnews.com

대표전화: 1899-2026

검찰 '회계 의혹' 정의연 밤샘 압수수색

'의원' 신분 감안해 21대 국회 개원 전 수사 끝내려는 듯



검찰 수사관들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무실에서 부실 회계 의혹 등을 받는 정의연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준비된 차량에 싣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20일 정의연 압수수색 의혹 시기 대표 윤미향, 첫 소환 유력

기부금 횡령 의혹 등이 일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 당선인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1일 오전 정의연 사무실에 대한 약 12시간의 '밤샘' 압수수색을 마쳤다. 정의연은 이날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하며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21일 오전 정의연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 회계검증 절차 과정에 진행된 검찰의 전격적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의연은 공정한 수사 절차를 통해 그간 제기된 의혹이 신속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인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

석)는 서울 마포구 소재 정의연 사무실과 전경과여성인권박물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정의연의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5시쯤 시작된 압수수색은 약 12시간여 뒤인 이날 오전 5시30분쯤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 남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요집회 중단을 촉구하며 정의연 및 윤미향 당선인(정의연 전 대표)에 후원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정의연과 윤 당선인은 기부금 사용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을 둘러싼 횡령 혐의, 그리고 경기도 '안성 쉼터' 고가 매입을 통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고발인 중에는 2018년 경기도 안성에 평화의소녀상을 건립하면서

6800여만원을 신고 없이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 당선인(경기 안성)도 포함됐다. 정의연과 관련해 접수된 시민단체들의 고발은 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당선인 등에 대해 수리된 시민단체들의 잇단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지휘를 하는 대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윤 당선인이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고, 의혹과 관련된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며 윤 당선인을 아동학대와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안동완)에 배당됐다.

오원근 기자 sinmun2032@daum.net

경기도 용인 역삼지구 조합원들의 갈등 진퇴양난

PM업체참여 희망하는 넥스플랜(주)는 고소장제출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세정파트너스 제공.

18년이 넘도록 조합원들의 분쟁과 계파갈등 각종 소송 등으로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최종적인 PM업체 선정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진흙탕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용인시가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작한 도시개발 사업이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개발사업조합, 업무대행사, 도시개발사업 조합내에 토지매각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의 조직적인 방해 등의 이유로 불신과 내용을 한두번 위기봉작을 경험한 것도 아닐 것인데 아직까지 PM사 선정을 미루고 있다보니 현재의 조합원들에게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질적으로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에도 위와 같은 갈등과 비리혐의 등으로 감보율을 높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는지,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였는지 등의 내용까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바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검찰은 용인시정 도시개발과로 하여금 구역지정고 추진경위에 대한 택지개발계획 관련서류를 전달받아 시행사를 비롯하여 투자자와 조합원등을 소환하여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도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PM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넥스플랜(주)은 이00

대표이사의 명의로 김00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전임 조합장(정00)과 전 시행업자(주)다우아 이스콘스 전 대표이사(강00), 오륜산업개발(주) 대표이사(정00)를 상대로 하여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업무상 배임, 공동정범, 수뢰죄, 뇌물공여죄, 사후수뢰죄, 사기 등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부는 구속수감중인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넥스플랜(주)은 또 한편으로는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에게 "PM업체 선정 관련 체비지 매입 조건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어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반면에 오륜산업개발(주) 정00 대표이사는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인사말에서 넥스플랜(주) 이00 대표이사를 비난하면서 이00 대표가 무슨 근거로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것인지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시기 바란다며, 그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으면 이00 대표이사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조합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PM업체가 선정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오원근 기자 sinmun2032@daum.net

소통하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 1등 보성군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보성녹차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벌교꼬막

전국 최대 주산지

보성키위

보성물

집에서 청정 보성의 우수농특산물을 만나보세요!

mall.boseong.go.kr 보성물 검색

보성군 대표 SNS 가입하기

f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eenboseong/

blog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boseonglove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greenbose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N2Yt1YuYkbs5hc69PgCpyQ

유튜브 구독하고 댓글 달면 보성녹차를 얻을 수 있다고?!

※ 매달 추첨을 통해 보성군 페이스북에 당첨자 게시를 합니다.

정경심 “표창장 파일, PC백업시 들어와”

정 교수, 집에서 사용 동양대PC서 표창장 파일 발견이유 해명 法 “업무용 파일 있었냐” 질문에 “파일 워낙 많아서…보겠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집에서 사용했다가 반납해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방치돼 있던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정 교수는 “업무용 PC 데이터를 백업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도 모르게)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강성수 김선희)는 21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정 교수가 쓰던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나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7일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표창장 발급에 관여하지 않은 정 교수 컴퓨터에서 왜 표창장 파일이 나왔는지 설명이 없다”며 정 교수 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검찰은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돼 동양대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정 교수 컴퓨터에 대해 정 교수가 2016년 12월까지 해당 PC를 집에서 사용하다가 동양대에 가져다 놓은 다음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는 2014년 업무용 PC 자료를 해당 PC에 백업하는 과정에서 표창장 파일이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업무용 PC 사용자가 누구인지, 데이터를 해당 PC에 백업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 교수 측이 밝혀라고 요구했다.

주심 판사인 권성수 부장판사는 변호인에 “PC에 누가 백업을 했는지, 아

니면 전체 파일을 백업했다는 건지, 집에서 쓰려고 선별해서 (백업해) 가져갔다는 건지 설명이 전혀 없다”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그걸 저희가 알지 못해 ‘추정된다’고 썼다”며 “자꾸 검찰이 석명요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형사 소송이라는 것이 기소하면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민사소송처럼 계

속 주고받고 석명하는 이런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기억이 안난다거나 모른다고 하면 객관적 판단은 저희가 한다”면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가능성을 우리가 다 심리할 수 없어 피고인의 기억을 들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알 수가 없다. 전혀 기억을 못 한다”고 했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해당 PC 파일들 전부 정 교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파일들만 있는 것 같으면서 전체 파일 중 업무용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했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그 파일이 워낙 많아 파일을 다 보지는 못했다”며 “봐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낸 표창장 사진 원본파일을 언급하며 “사진파일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어디서 냈는지, 이 파일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의견서를 내달라”고 했다.

정 교수는 또 동양대 직원과의 통화 내용에서 정 교수가 언급한 ‘인주가 변하지 않은 수료증’을 현재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재판부 석명 요청에 대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송원기 기자 mbc0300@gmail.com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99년 전자서명법제정과 함께 등장한 공인인증서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공인인증서 ‘갱신 없이’ 평생 쓴다

사용금지가 아닌 독점 폐지…기존 공인인증서 계속 사용 가능

매년 사용기간을 직접 연장해야 했던 공인인증서가 3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 번 발급하면 유효기간을 신경쓰지 않고 쪽 쓸 수 있다는 얘기가.

금융결제원은 21일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해소한 새로운 인증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며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내놨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와 사실 인증서 구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결제원은 은행별로 다른 인증서 발급 절차를 통일하면서 복잡한 발급 방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향후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비밀번호는 지문·안면·홍채를 인식하거나 6자리 숫자인 핀(PIN) 번호나 패턴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는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 이상을 쓰도록 해 비밀번호를 만들기도 까다로운 데다 기억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증서는 USB메모리 같은 이동식 디스크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도록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온라인 기반 저장소)를 활용하기로 했다.

클라우드에 인터넷만 가능하면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만큼 인증서를 일일이 옮기거나 복사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가 언제 어디서 사용됐는지 그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지능형 인증시스템은 이용자의 인증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 패턴을 분석해 인증서 도용 여부를 판단한다. 불법적 이용이 의심되면 등록된 고객 단말기로 알려준다.

금융결제원은 하나의 인증서로 여러 영역에서 로그인에 물론 본인 확인, 약관 및 출금 동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표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인증서로 은행, 신용카드, 보험, 정부민원 업무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운 인증 서비스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당장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결제원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인증서비스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정복 기자 axoway1212@naver.com

‘여성 연쇄살인’ 최신종 포토라인은 안 선다, 왜?

이미 기소 되는데다 현장검증도 없어 얼굴공개 기회 없어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종(31)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뒤 검찰로 송치될 때 포토라인을 통해 피의자의 모습이 공개되지만, 최신종은 이미 첫 번째 범행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현장 검증도 고려하지 않으면서 최신종의 모습은 법정에서만 볼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정신의학전문 등의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신종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확보, 공공의 이익 등의 이유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최신종의 신병이 이미 검찰

로 넘어가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법무부의 새 공보준칙(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소환 금지로 인해 사진이 아닌 최신종의 실제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 과정에서 포토라인 공개 여부도 논의했지만 피의자가 이미 구속 기소된 데다 현장 검증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얼굴 노출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신종은 지난달 15일 자정께 아내의 지인 A(34·여)씨를 승용차에 태워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했다. 지난달 18일 오후에는 부산에서 전주로 온 B(29·여)씨를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최신종의 차에 탄 뒤 연락이 끊겨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은 최신종이 두 번째로 살해한 부산 실종여성 사건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054-463-7738

블랙박스,통신모듈PBA조립(민수분야)

군용무전기,레이더RF모듈부품,전장하네스류(방산분야) 제조 전문

주요상품



<블랙박스 및 PBA>



<군용 무전기 RF 모듈>



<군용 레이더 부품류>

경북 구미시 1공단로6길 141 (지이티 시스템 B동)

올겨울 “독감과 코로나 섞여 유행하면 위험”

의료진들 꼭 ‘접종’ 권고, “무료접종 19세 이하·60세 이상 검토”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여파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백신 접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임종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 세계적인 접종량 증가가 예상된다. 꼭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섞여서 유행하면 둘을 증상으로 구분할 수 없어 더 큰 혼란이 야기된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인구의 독감 및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 전 국민의 약 40%가 접종할 물량이 만들어지는 걸로 하는데, 올해는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백신 수급 계획을 세우는 질병관리본부는 적절한 생산량 책정을 두고 고심 중이다. 올해는 코로나19와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식약처가 국가 출하 승인한 독감백신은 2400만 명 이상 분량이다.

우선 4가 백신의 국가예방접종(NIP)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올해부터 정부는 만 6개월~12세 영유아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4가 백신의 무료접종을 지원한다. 4가는 A형 독감

인플루엔자, 코로나19와 유행시기·증상 유사해 “독감 최소화하면 코로나19 확진자 분류 용이”



바이러스 두 종류와 B형 바이러스 두 종류를 모두 예방해줘, 기존의 3가(A형 2종, B형 1종)보다 예방 범위가 넓다. 접종률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는 무료 접종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고등학교 및 50세 이상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감염 위험이 높음에도 국가예방접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로 지적돼 왔다. 이들에게 무료 접종 대상이 되면 접종률은 훨씬 높아진다.

백신은 만들어 출하하는 데 2~3개월은 걸려, 부족하다고 딱딱 만들어낼 수 없다. 또 계절성 제품이라 너무 많은 물량을 생산했다가 덜컥 남으면 모두 폐기해야 하는 위험도 있다. 계획 생산이 중요한 이유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4가 백신의 접종 대상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확대 여부에 따라 올해 생산량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접종 증가를 고려해 수급량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가접종 물량만 늘릴 수도 없다. 일반접종 물량과의 안배도 중요해 다양한 사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4가 독감백신을 생산하는 곳은 국내 제약사 중 GC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보령바이오파마, 일양약품, 동아에스티, 한국백신 등이 있다. 사노피 파스퇴르와 GSK는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이 중 GC녹십자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생산 물량이 가장 많다. GC녹십자는 지난해 약 850만 도즈(1도즈=1회접종량),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약 600만도즈를 출하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여러 사안을 고려해 생산량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화산 공장에서 연간 5000만 도즈까지 생산 가능하다”고 말했다. SK는 생산 규모 확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백행주 기자 phj1654911@naver.com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통장 잔고증명서 관련 분쟁서 1심 승소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 2018년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장모 사기 혐의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21일 사업가 임모씨가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수표금 소송 1심 선고재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임씨는 2014년 4월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58)씨가 2013년 6월 24일자로 약 71억원이 위조된 통장 잔고 증명서를 받고 최씨 등에게 18억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임씨는 당시 최씨가 “내 사위가 윤석열 검사”라고 강조하면서 투자를 부탁받았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위조된 잔고 증명서에 속아 돈을 떼였으니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최씨는 동업자인 안모(58)씨, 가담자 김모씨와 함께 신한저축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4차례에 걸쳐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4월1일 약 100억원, 6월24일 약 71억원, 8월2일 약 38억원, 10월11일 약 138억원 등이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

원에게 자금력을 증명하고 부동산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와 안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 해 계약금이 국가로 귀속되자,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뒤 위조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임씨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 최씨의 개입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최씨도 검찰 조사에서 임씨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최씨 등은 이 사건에서 언급된 위조된 통장 잔고 증명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이 사건에 대해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안씨에게 수십억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씨는 “최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고 최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대범 기자 55db@naver.com

인천 코인노래방 2주간 ‘집합금지’...정부, 전국 확대 검토



고3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2층 코인노래방이 20일 닫혀 있다.

인천시는 다음달 3일까지 코인노래방 178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노래연습장 2,362곳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한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인천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강사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 코인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매개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학교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긴급조치”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또 학원·교습소 운영자제

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24일까지 연장했다. 태권도장, 합기도장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 1,403곳에 대해 24일까지 운영 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도 새로 발동했다.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운영자제 권고 행정명령이 내려진 PC방에 대해서는 행정 명령을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측은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방에 대해 시군구 공무원, 경찰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학원, PC방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기원 기자 kscope777@naver.com

도심속자연안식처

작은쉼터 캠핑장

<주요시설>

풀장&카라반 내부

매점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자연속에서 잠시 쉬어갈수 있는 작은쉼터야영장

NAVER 작은쉼터야영장

경기도 시흥시 죽율로 25(죽율동)
031-431-6660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이 안아달라기에 안아준 것, 화해 아니다”

“포옹하며 눈물 났지만 용서한 적 없어” 25일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힐 예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56) 당선인과 관련, “용서한 게 없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25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연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지난 19일 저녁 대구 중구의 호텔에서 윤 당선인을 만났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이 할머니는 윤 당선인을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이 할머니가 윤 당선인을 용서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를 강하게 부정했다.

이 할머니는 20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윤미향이 갑자기 방으로 찾아와 감짝 놀랐다”며 “푸릇한 이유도 대지 않고 무릎만 꿇고 용서를 비는데 뭘 용서하란 말인가. 난 용서한 게 없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배신한 윤미향이 괴심했다”고도 했다.

이 할머니는 윤 당선인이 ‘한 번 안아달라’고 해 포옹했다며 “안으면서 30년 함께 한 세월이 떠올라 눈물이 흘렀다”고 했다.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집회 기부금 사용' 의혹을 제기한 이후 두번째 수요집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자유연대 회원들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수도 아니고 안아달라는데, 안아준 것을 가지고 화해를 했다고 마음대로 해석한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결코 화해나 용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최근 정의연 회계 의혹 등 논란에 대

해서는 “그건 법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윤미향에게 말해줬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윤 당선인에게 “조만간

기자회견을 할 테니 그때 대구에 와라고 말한 후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을 25일 기자회견에 부른 것은 “배신자와 배신당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어야 옳고 그름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 참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 후원금 사용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기 수요 집회를 없애고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확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7일 기자회견 후 이 할머니가 언론의 접촉 등을 피해 집을 떠나 있기도 했다”며 “기자회견의 정확한 장소와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행주 기자 phj1654911@naver.com

20일 등교 대구 고3생 코로나19 확진... 학생 전원 귀가, 학교 폐쇄



등교 수업을 시작한 대구 한 고등학교에서 하루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나와 학교가 폐쇄되고 3학년 전원이 귀가조치됐다.

2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수성구 대구농업마이스터고 기숙사에 입소한 고3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북 구미가 집인 이 학생은 지난 19일 오후 기숙사에 입소한 다음 날 검체 검사를 했고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학교 측은 이날 1교시 수업 시작 직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양성으로 나온 이 학생을 포함한 기숙사생 17명을 격리조치하고 나머지 3학년 학생 94명은 귀가시켰다.

또 학교 시설을 이틀간 폐쇄하고 방역하는 한편 이날부터 수업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생과 같은 반 학생 18명 등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검체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현금 깡’...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지역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비자에게 웃돈을 요구하는 상점은 등록 취소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행위 근절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부정유통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수령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재판매해 현금을 확보하는 속칭 ‘현금 깡’ 방식과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를 불합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다. 두 유형 모두 처벌 대상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하다가 적발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당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개인 간 거래를 막기 위해 부정유통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기여도에 따라 환수된 지원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행안부는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안도 활용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를 차별 대우하는 상점에는 제재가 내려진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소비자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상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같은 위법 행위를 한 상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오는 8월 31일까지 부정유통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의 신청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4월 30일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분리 수령이 가능하다.

정호복 기자 jhoo48@naver.com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긴급재난지원금

대한민국정부

미래를 일깨우는 따뜻한 금융

서로에게 힘이 되는
‘희망한날’

어느 때보다도 힘들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은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내일,
신한카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힘내세요! 긴급재난지원금 신한카드 바로 서비스

<p>신한카드 바로! 모든 신한카드로 신청하고, 확정 통보 후 바로 사용 가능 내역/잔액도 바로 확인 카드 서비스는 그대로, 카드 신용한도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p>	<p>신청기간 / 신청채널 5.11 ~ 5.31 신한카드 신한금융그룹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한Pay, 신한Pay, 신한Pay, 신한Pay 등) 5.18 ~ 종료일 미정 신한은행 영업점</p>	<p>사용 확인 지원금 범위 내에서 신한카드를 결제할 때 자금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계좌인출 없이 사용 가능 신청 문의 및 안내 ARS 1522-7777</p>	<p>긴급재난지원금 상세 안내</p>
---	--	---	-----------------------------

※ 자세한 사용방법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간접광고: 상해법 제20200511-Cpr-001 제20200511-2021.05.10

Lead by 신한카드

“재수생 시험 안봐 정확한 위치 가늠 불가”

전국 단위 모의고사 올해 처음...인천 66개 고교는 온라인

고3 등교 둘째 날인 21일 오전 전국 고등학교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성적을 채점하는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가 일제히 시작됐다.

인천 고등학교 66개교 약 1만3000명은 온라인으로 치르고, 재수생 등 졸업생은 응시하지 않고 별도로 온라인 시험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오는 12월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비해 본인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결국 다음달 18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모평) 결과가 사실상 수시모집에 지원할 것인지, 정시모집에 지원할 것인지, 어느 대학에 지원할 것인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6월 모평에는 재수생도 응시한다.

입시전문가들은 학력평가 후에는 가채점을 하고 답안교사와 면담을 통해



2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고등학교에서 어제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한 고3 학생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을 보고 있다. 나머지 인천의 66개 학교는 온라인 시험을 본다.

전년도 교과 성적,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활동 기록을 분석하고 전형 요소에 따른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원 가능대학과 전형 유형을 탐색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지원자라면 보충해야 할 학생부 기재 요소를 파악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내신성적이 중요하다면 중간고사 준비 계획도 세워서 실행해야 한다. 희망 대학과 학과, 전형 유형을 결정하고 지

원자격, 전형요소, 최저학력기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서류는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자료도 챙겨봐야 한다.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출문제, 모의문제, 예상문제 등을 구해 풀어봐야 한다. 그때 각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는 2020 대입 선행학습영향평가서도 필독해야 한다.

유웨이 이만기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현재의 위치를 진단하는 이번 학평은 시험범위가 적다는 점, 재수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실제는 이성적보다 수능에서 성적이 더 떨어질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이날 시험 결과로 본인의 수능 점수를 예측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즉시 중간고사 대비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재만 기자 jm8561@hanmail.net

민경욱 “압수수색 영장 나와”...

구리시 선관위 관리 부실로 고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탈취됐다는 의혹 관련 수사 의뢰된 사건으로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의원은 오히려 수사를 의뢰한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관리 부실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성명 불상자가 (민경욱 의원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졌으며 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지난 11일 공개한 6장의 투표용지를 구리시 선관위에서 자기 것이 맞다며 그들이 ‘투표용지 탈취 사건’이라고 부르며 수사의뢰 한 것에 대해 (검찰이) 증거를 찾아야겠다는 취지로

압박하는 것으로 느꼈다”며 “어차피 3시에 의정부지검에 출두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 의원은 11일 공개한 6장의 투표용지를 의정부지검에 제출하는 대신 대검찰청에 부실 선거관리로 구리시 선관위를 고발하며 증거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검찰청에 가서 투표용지 관리를 잘못된 구리시 선관위 직원들을 고발하겠다”며 “잔여 투표용지는 개표장에 있으면 안 되는데 개표장에 자물쇠도 채워지지 않은 체력단련실에 잔여 투표용지를 담아서 가져왔고 투표용지가 없어진 것도 발견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 부실이고 개표장에 가져온 것은 법에서 정한 절차 지키지 않은 죄가 있다”며 “죄를 묻는 고발장 제출하겠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잘못된 행동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증거물을 쓰려는 생각에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증거물도 그쪽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욱 기자 kioosp200@hanmail.net

정부, 전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연장할 듯...

6월까지 여행 취소·연기, 149개국 입국금지 조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Pandemic) 상황에서 전 세계 국가·지역에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3월23일 전 국가·지역 해외 여행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후 4월에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6월23일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는 것으로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다. 현재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5월23일부로 자동 해제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은 데다 상당수 국가들이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한국시간) 전 세계 코로

나19 확진자 수가 508만4934명, 사망자는 총 32만9719명, 회복된 환자 수는 202만1839명이라고 집계했다.

한국발 입국자를 금지하는 국가도 여전히 많다. 전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49개 국가·지역에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2개국에 선 14일 의무 격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증 발급 중단, 자가격리 권고, 도착 시 발열 검사와 검역 신고서 징구 등 검역 강화 및 권고 국가는 25 곳이다.

입국 금지국은 한때 153개국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149개국으로 감소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세르비아, 헝가리, 남수단, 에콰도르 등 4개국은 입국 금지에서 검역 강화,

벨라루스는 격리 조치에서 검역 강화로 조치를 완화했다. 하지만 유엔 회원국(193개국)의 77%에 달하는 국가들이 여전히 빗장을 걸고 있어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지면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외교부는 최대 90일까지 발령 가능한 특별여행주의보가 6월23일로 종료되는 만큼 후속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하반기에도 코로나19가 얼마나 진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입니다

세계적인 인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미중 비밀 외교채널도 끊겨...양국 긴장 더욱 고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비공식 외교채널조차 단절돼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외교채널의 완전한 단절은 코로나19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계속 악화되는 이유 중 하나다. 공식 채널은 물론 비공식 외교채널도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왕후이아오 중국글로벌센터 소장은 "미중 정부 관계자, 기업 임원, 전직 관료와 학계 인사들 간 물밑 접촉은 코로나19로 인한 갈등과 여행 제한으로 완전히 중단됐다"며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소통 채널이 단절된 탓에 미국과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국은 공개 논평과 트위터 등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언론 논평을 통해 "중국의 통계를 믿지 못한다", "중국에 크

게 실망했다" 등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중국 외교부 관리들도 트위터를 통해 연신 미국을 향해 비난

의 화살을 돌리며 반격하고 있다.

왕위 중국 국무원 자문위원은 "외교채널이 없어 양국 지도자가 서로 할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대변인과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소통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미국에서 약 9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 이에 미국은 '중국 책임론'을 내세우며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비공식 외교채널까지 단절된 상황에서 미중 1차 무역협정·화웨이 제재·중국 기업 나스닥 상장 제한 등의 문제를 두고 양국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박행주 기자 phj1654911@naver.com



한국은 1분인데, 일본은 언제?

느려터진 코로나 현금 지급에 속 터지는 일본인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자국민에 현금을 직접 주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지금 속도 등의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보·기술(IT)화가 진행된 한국의 행정 인프라가 서류 위주의 일본 접근 방식보다 신속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 '바이러스 구호에서 최신 기술에 능통한 한국이 서류작업 위주의 일본을 이겨(In Virus Relief, Tech-Savvy Korea Beats Paperwork-Heavy Japan)'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의 차이를 집중 조명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관련 예산안이 같은 날인 지난달 30일 각자의 국회를 일제히 통과했다. 한국에서는 가구당 40만~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일본에서는 전 국민에 1인당 10만 엔을 주는 예산안이 일제히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하지만 수주 뒤 나타난 결과에서 두 나라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에서는 19일 기준으로 전체 가구 가운데 80%가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고 행정안전부가 집계했다. 반면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우편으로 신청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주민들 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한 곳은 19%에 불과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신속한 지급의 핵심 요인으로 중앙집중적

인 행정 능력과 신분확인시스템을 꼽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선통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자국민에 현금을 직접 주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지금 속도 등의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보·기술(IT)화가 진행된 한국의 행정 인프라가 서류 위주의 일본 접근 방식보다 신속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 '바이러스 구호에서 최신 기술에 능통한 한국이 서류작업 위주의 일본을 이겨(In Virus Relief, Tech-Savvy Korea Beats Paperwork-Heavy Japan)'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의 차이를 집중 조명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관련 예산안이 같은 날인 지난달 30일 각자의 국회를 일제히 통과했다. 한국에서는 가구당 40만~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일본에서는 전 국민에 1인당 10만 엔을 주는 예산안이 일제히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신속한 지급의 핵심 요인으로 중앙집중적

김순철 기자 ash1931@naver.com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도쿄 올림픽, 내년 개최 못하면 취소' 인정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진 도쿄 올림픽이 내년에도 개최되지 않으면 취소될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20일(현지시간) 바흐 위원장은 BBC 스포츠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혔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억제하지 못할 경우 올림픽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요코쿠라 요시타케 일본의 사회 회장은 도쿄 올림픽 개최 여부는 백신 개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런 시각에 동의하냐고 묻자 바흐 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 조언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 모든 참가자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게임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1년, 2개월 뒤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내년 여름 개최가 "마지막 선택지"라고 자신에게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솔직히 말하자면 3000~5000

명을 영원히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고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밝혔다.

추가 연기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는 "매년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전체 스포츠 경기 일정을 바꿀 수는 없다. 운동선수들을 그런 불확실성 속에 둘 수 없다"며 "다음 올림픽과 그렇게 많이 겹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접근법이 일부 이해된다"고 말했다.

도쿄 올림픽은 2021년 7월로 미뤄졌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2022년 2월 열린다. 도쿄 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돼도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 간 시차가 7개월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무관중 올림픽을 거론하고 있다. 그는 그러한 선택지는 "추정"의 영역에 남아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수, WHO, 일본 파트너들과 의논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덧붙였다.

올림픽이 연기된 건 사상 최초다. 올림픽은 1·2차 세계대전으로 취소된 바 있다.



코로나 브라질서 '폭발'...확진자 하루 새 2만명 증가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2만명 넘게 늘어나 미국 다음으로 피해가 큰 러시아를 곧 넘어설 것 같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날 브라질 보건 당국은 하루 사이 확진자가 2만1472명, 사망자가 911명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그간 브라질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1만5000명 선이거나 그 아래였다. 현재 브라질의 총 확진자는 29만3357명, 사망자는 1만8894명이다.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1일 현재 미국의 확진자는 160만명에 육박했다. 사망자는 9만4941명이다.

러시아는 확진자 30만8705명, 사

망자 2972명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며칠간 러시아에서 확진자는 하루 8000~9000명대로 증가하고 사망자는 94명~135명 사이에서 늘고 있다.

브라질과 러시아의 확진자수 차이는 1만5000명 전후에 불과해 며칠 사이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페루와 칠레 등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남미의 이같은 급증세는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북반구는 날이 따뜻해지는 반면 남반구의 남미 국가들은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계절인 겨울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현원 기자 kvp39@hanmail.net

www.adparkcom.kr

기업도 '메이크업'이 필요할 때.

↓

새롭게 창업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을 때! www.adparkcom.kr

디자인+인쇄+홈피+광고+CI, BI. 원스톱 서비스

인쇄 + 디자인 | 홈피+기획,디자인 | 광고 + 디자인 | 그래픽 디자인

PACKAGE DESIGN SYSTEM
기업 및 브랜드 디자인 패키지 시스템

- A** PACKAGE Basic — w 500,000
CI, 또는 BI, 기본형 + 홍보물 3종 + 웹플랫 홈피 + 기본간판
- B** PACKAGE Economic w 1,000,000
CI, 또는 BI, 기본형 + 홍보물 5종 + 일반형 홈피 + 사인시스템
- C** PACKAGE Premier — w 2,000,000
CI, 또는 BI, 기본, 응용형 + 홍보물 7종 + 기업형 홈피 + 사인시스템

성공 비즈니스, 전략적 마케팅을 위한 -

기업 이미지 메이크업!

애드파크 031-904-8805
adpark communications 010-7591-7149
tgpark2043@naver.com

3기 신도시 교통대책...하남교산-송파 '전철 20분' 거리로

3기신도시 하남교산·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발표

하남교산은 서울 기존 지하철역이나 신설역에 연결 고려

수도권 3기신도시 지구 가운데 하나인 하남교산 신도시가 서울 송파 도심까지 20분대, 강남 도심까지 30분대 거리로 가까워질 전망이다.

국도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3기신도시는 1·2기와 달리 입지 발표 때부터 교통대책을 알리면서 입주민들이 초기부터 교통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대책을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 협의해온 만큼, 이후 인허가도 신속히 추진할 예

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3만 2천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하남교산지구는 서울 송파구 도심 등과의 거리가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기존에 도로교통에 의존해 잠실까지 50분, 강남역까지 65분가량 소요되던 거리를 이번 대책을 통해 철도교통을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잠실까지 20분, 강남역까지 30분으로 이동시간을 30~35분가량 줄이겠다는 것이다.

202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 해당 전철 노선이 구체적으로 어느 역으로 향할 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기존 서울 지하철 노선에 연결하

는 방안은 물론, 아예 서울 내 역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역으로는 서울 지하철 3호선의 종점역이자 5호선 환승도 가능한 오금역, 2·8호선을 지나는 잠실역, 9호선으로 서울 여의도까지 급행이 가능한 9호선으로 이어지는 중앙보훈역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른다.

국토부는 "앞서 발표한대로 기본적으로 3호선 연장을 중점에 두고 있는 건 맞지만 오금역이 워낙 외곽지역에 있다"며 "신도시 입주민들의 출근지를 분석하고 있으며, 강남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 좀 더 서울 안쪽의 송파·강남쪽으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3의 답'으로 서울 내 신설역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인정하면서 "이번달 말 국토부와 경기도, 하남시가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한 뒤 올해 하반기에 중착지를 결정내릴 것"이라며 "빠르면 6~7월에 발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하남교산과 과천지구는 청야 경쟁률이 1:1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자급 회수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해당국의 판단이다.

이밖에도 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서울~양평고속도로 부분확장, 동남로연결도로, 황산~조이간 도로 등 전체 철도·도로 등 20개 사업

에 2조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과천지구에는 GTX-C 정부과천청사역 환승역사 투자 계획과 더불어 위례과천 연장 구상 등의 구상이 더해진다.

국가철도망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위례과천선은 기존 북정역~경마공원역을 이을 것으로 구상된 노선을 과천정부청사역으로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위례과천선은 아직 그 자체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지만, 전체 1조 6천억 원의 예산 가운데 이 같은 구상을 위한 4천억 원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안양~사당 BRT와 청계산지하차도-염곡IC도로 구조 개선,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등 10개 사업에 7400억 원의 투 계획이 수립돼 있다.

국토부는 "지하철의 경우 최소한 필요한 절대 공기가 있어 때문에 이를 최

대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신도시 주민들의 입주 시점보다 늦어지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초반에는 신도시만으로 수요 확보가 어렵더라도 이런 문제를 보완해줄 광역버스가 충분히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에 이미 반영해 놓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3기신도시인 인천 계양, 부천 대장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다음 달 안에 LH로부터 구상을 제출받아 지자체와 전문가와 협의를 거친 뒤 하반기에 확정 발표될 방침이다.

6만 6천 호의 가구가 대규모로 공급될 남양주 왕숙은 추가 대책을 포함한 전체적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중인데, 이 역시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대광위의 심의를 받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조희동 기자 121dong@naver.com



지난해 8월 미국 뉴욕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19' 행사 모습. ©삼성전자 제공

삼성 '갤럭시노트20' 공개 행사 사상 첫 온라인으로 열수도

삼성전자가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 언팩(신제품 공개)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언팩 행사를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인 '갤럭시폴드2'도 공개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새 태블릿이나 중저가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를 출시할 때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에서 공개한 적은 있어도 플래그십(전략) 제품을 온라인에서 공개한 적은 없다고 해외 IT 샘모바일은 전했다.

삼성전자는 2월과 8월 매년 두차례 신제품을 공개하는 언팩 행사를 개최해왔다.

언팩에는 매년 전 세계에서 온 관람

객들이 몰리는데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열린 언팩 행사에는 3000여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갤럭시S20를 보기 위해 모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행사를 개최할 경우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데다 수많은 인원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 온라인 행사를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언팩 행사 온라인 개최가 유력하지 않을까 한다. 결정은 안됐지만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향후 코로나가 지속될지 혹은 소강상태로 갈지 판단할 수 없다. 사업부에서도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하반기 언팩 행사 개최일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측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외신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월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진희 기자 ditfk115@naver.com

BC카드, '그린카드'로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 '반 값' 할인...월 최대 2만원 할인 한도

BC카드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구의 날' 50주년을 맞아 연말까지 BC그린카드로 전기·수소차 충전요금을 결제하면 50%의 청구할인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차 보유 고객이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등 충전사업자가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에 미리 BC그린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수소차는 별도 과정 없이 전국 19개

수소차 충전소에서 BC그린카드로 결제하면 적용된다.

할인 한도는 전월 실적 구간에 따라 월 최대 2만원이다.

BC카드가 에코머니 포인트 5배 추가 적립 이벤트도 실시한다. 전기·수소차 충전 비용을 할인받은 고객이 그린카드 제휴유통사에서 친환경인증제품을 구매하면 기본 적립 외에 에코머니 포인트 5배를 추가 적립해준다.

이진희 기자 aas2779@naver.com

www.huic.co.kr

하남 시민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을 짓습니다.

하남도시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나눔경영 실천을 통하여 바람직한 공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단 정기봉사활동과 취약계층 주거정비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하남시민 모두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huic 하남도시공사

Hanam Urban Innovation Corporation

‘신천지 명단 누락’ 의혹 밝힌다

검찰, 신천지 압수수색 검사등 100여 명 전국 신천지 시설 대상

코로나19를 확산한 신천지에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천지 시설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2일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신천지 과천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89)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형



지난 12일 청와대 분수앞에서 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 고발과 직접피해자 피해 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피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그동안 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집회

장소 및 신도 명단과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 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제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 접수 석 달여 만에 이뤄진 검찰의 첫 강제수사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피연 고발 사건 수사의 연장선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일 뿐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논의의 바 없다”며 “압수수색 대상 및 압수물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행주 기자 phj1654911@naver.com



민식이법 위반 첫 사망사고 운전자 영장 신청 포천서 발생...40대, 39km 어린이 치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 위반 1호 사례가 경기 포천시에서 나왔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상에서 11세 어린이가 A(46·여)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과 운행기록장치 등을 분석해 사고 차량이 시속 39km로 주행한 것을 밝혀내고 A씨에게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 지난 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발생일시 기준으로 국내 1호 민식이법 적용 사례, 송치 기준 2호 사례다.

피해 아동은 전치 6주의 팔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부주의에 의한 과속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에서는 현재까지 포천 사례를 포함해 4건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발생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판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발생 과속 여부와 운전자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과속은 사실상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을 받게 되니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 kioosp200@hanmail.net

여직원 성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경찰 출석

취재 따돌리려 하차지점 바꿔...警, 사퇴시기 조율 의혹 등 조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서 오 전 시장의 시장직 사퇴 경위 및 시기와 사퇴 과정에서의 외부인사 개입 여부,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의 채용비리 의혹 등도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8시쯤 변호인과 함께 차량으로 부산경찰청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조사실(진술녹화실)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사퇴 시기 조율 등 여러 의혹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경남 거제와 전남 순천 등에서 칩거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사 왔다.

경찰은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자 한때 공개 소환 여부를 검토했지만 오 전 시장 측이 경찰 조사 때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취재진 등의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비공개 소환으로

결정됐다. 오 전 시장은 이날도 시민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취재진을 따돌리려 하차 지점을 바꾸고, 지하 통로로 은밀히 출두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 측과 4월 이내에 사퇴한다는 공증 한 뒤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했다.

오 전 시장 사퇴 4일 만에 30명의 대규모 수사진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동안 정무라인 최측근과 비서실을 포함한 시청 직원, 시민단체 고발인들을 조사해 왔다.

오 전 시장과 측근 인사들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통화내용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마쳤고, 피해자와 작성한 공문서까지 확보해 일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최근 경찰과의 피해 진술 조사에서 오 전 시장의 엄벌을 촉구한 상태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조사한 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이나 불구속 기소 등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 공무원들은 오 전 시장이 이끈 민선 7기 2년간 시정 운영에 대해 혹평을 내놨다. 또 부산 공무원노조는 22일 오전 시청 로비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 전 시장 사퇴 이후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복귀한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에 대한 출근 금지 투쟁에 이어 피켓을 들고 사퇴촉구 집회를 벌였다.

부산 공무원노조가 최근 부산시 공무원 1428명을 상대로 한 ‘민선 7기 2년 시정 평가’ 설문조사에서 ‘민선 7기 2년간 시정 운영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5.8%가 부정적이었고 긍정 평가는 10.4%에 그쳤다. ‘부산시 조직 운영 중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잘린 게 없다’는 답변이 61.5%로 압도적이었다.

배정달 기자 bod600@naver.com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상실질심사 연장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에 참가한 ‘범행자금 제공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상실질심사) 일정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박사방’에 참여한 임모씨와 장모씨에 대한 영상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의 변호인 일정 때문에 다음주로 연기했다”며 “다른 피의자도 공범 또는 동일한 범 죄집단 구성원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음주에 함께 심사를 받은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영상실질심사 일정은

25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범죄특별수사단은 이들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등)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조주빈(25·남) 등이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박사방’에 돈을 내고 가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박사방’ 가입자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를 수행했다고 보고 입씨·장씨에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도 적용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착한 소비의 시작!! 전국 첫 공공배달앱 서로e음

배달서구

사용자는 **혜택 올리고**

소상공인은 **수수료 내리고**

※ 서로e음에서 배달서구를 클릭해주세요

Interview

(주)세정파트너스 권영안 회장

단 한번의 승부,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

(주)세정파트너스의 운명을 걸었다



최근 불황기에 빠져 있는 한국 건설산업 업계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을 말하라고 하면, 단연 (주)세정파트너스를 꼽고 있다.

(주)세정파트너스는 경기도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 최초 대행사인 (주)다우아이스콘가 조합사업을 위해 금융기관(KB증권, 현대차증권)으로부터 체비 및 용인시 대행전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은 (주)다우아이스콘은 그 대출금을 조합원들에게 가채금 등으로 지급했으나, (주)다우아이스콘 측이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대출기관인 KB증권과 현대차증권 측이 그 권리를 담보하여 2019년도 12월에 공매를 진행할 당시 (주)세정파트너스가 이 권리를 획득하게 되면서 침체상태에 있던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 이무렵부터 (주)세정파트너스는 잔금가치를 예치한데 따른 사실에 근거하여, PM(제안) 공모의 시공사인 현대건설에서의 책임 준공과 금융 주관사인 교보증권 등에서 조지하는 대출 약속서를 제출하

여 PM공모에 참여했던 전력이 있었지만 순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발군의 저력은 (주)세정파트너스의 공신력과 출중한 재정확보 능력, 분양사업에 있어서의 '경륜'이라는 특출함에 힘입어 용인시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재도전 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용인시 지역 사회에서 뿐만이 아니다. 건설시행사업 전반에 걸친 (주)세정파트너스에 대한 시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용인시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 발전의 메인 시행사는 (주)세정파트너스가 되어야 한다는 공론들이 회자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

(주)세정파트너스의 경우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겨냥해 현재 주거개발 및 상권기반, 교육기반, 의료기반, 환경조성 등의 현대적 도시 면모를 갖추는데 확실한 플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주)세정파트너스 권영안 회장과 본지 대표인의 대담 내용이 다.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이나?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 (주)세정파트너스 건설산업의 메카로서 하나의 자존심이고, 용인 발전을 이룩하는 데 무언가를 기여해야 하겠다는 사회적 공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주)세정파트너스는 그동안 본 사업을 위해서 쓰여진 자금만 하여도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고, 또 앞으로도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해 놓았다. 따라서 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작을 했던 (주)다우아이스콘으로부터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점검했던 (주)세정파트너스로서는 이 사업의 성공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런 마음가짐은 기업인으로서의 '소명의식' 같은 것이다. 이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끝까지 완공을 시키겠다는 각오로 이번 사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조합측에서도 알아주셨으면 한다.

지금까지 기존의 사업비를 투자해온 (주)세정파트너스가 현역의 열정을 담아 조합원들 각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주)세정파트너스만의 자구적인 해결책만 갖고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을 성공리에 마무리 할 것이다. 그러니 정말로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사실 본보가 권영안 회장과 대담을 하기 전에, 용인 지역에서 (주)세정파트너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문을 해보았다. 그랬더니, (주)세정파트너스에 대한 품평이 매우 호평일색이다. 특히, 공공조직 사회에서 더 높은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사실 2010년 이후부터 10여 년간 난항이 있어 왔던 사업이다. 모두가 안되는 사업이라고 외면해 왔던 사업을 우리 (주)세정파트너스가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주)세정파트너스는 끈질기게 이 사업에 승부를 걸었다. 그러한 일련의 역사가 (주)세정파트너스를 좋게 평가하지 않았나 싶다. 다른 기업들이 외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회생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안과 대책을 제안해 왔다. 하여간 지역사회에서 좋게 평가되고 있다니까 기분 나쁘지는 않다. 앞으로도 조합원들과 일체감을 갖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성공리에 도시개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지방도시도 도시계획, 낙후지역 개발, 기존 도심재생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지방도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도시재생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도시 특히 기존의 지방 맹주도시와 산업을 이끌었던 도시들이다. 대구, 광주, 전주, 청주 등 기존 맹주 도시들은 지방의 중심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KTX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허브도시 역할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도시들은 보다 광역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주변 도시들과 네트워크로 연계된 도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수도권에 산업과 도시들도 급격히 노후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도시이지만, 이제는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위기의 도시로 가고 있다. 그러기에 이들 도시도 혁신전략을 통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부동산 도시개발사업 전문가인데 도시를 개발사업과 연관시킨것에 다소 생소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도시계획이 규제를 통해 땅값을 낮춘다거나 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커다란 오해이다. 오히려 도시계획의 목표는 지역 사회 전체의 토지 부가가치를 높이고, 비즈니스를 활성화 하는데 있다. 관건은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계획을 통해 차도의 폭을 줄이고 보행로를 넓히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하겠지만, 보행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므로 해서 지역 상인들의 사업에는 커다란 도움을 줄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도시계획과 사업은 상호 보완적이라 말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효율성을 다했다고 보는가? 아니면 여전히 기존대로 존치해야 한다고 보는지?

그린벨트 문제는 그동안 존치와 폐지의 양비론적 논리가 지배하여 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린벨트 실태와 공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그린벨트는 상당부분 '비닐벨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 실태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분당 등 5대 신도시는 그린벨트 바깥에 세워졌는데, 그리고서는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보급자리주택 등이 그린벨트를 야금야금 잠식했다. 이제 '그린'의 실태가 어땠고, '벨트'는 계속 필요하지 등에 대해 충분히 평가 토론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부동산 도시개발 사업 전문가로서 미래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미래의 부동산 시장을 생각할때 가장 큰 위협요인 중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수요 및 구매력 감소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상주인구가 아닌 유동인구의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먼저 국경을 초월한 개방형 국토전략을 펼쳐야 한다. 요쿠(중국인 관광객)가 명동 바닥을 훑고 지나가면 상권이 되살아 나듯이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도시들을 세계인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구조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

축소도시 또는 과소도시가 우려되는 지방 중소도시들은 오히려 인구가 적어 방문객들에게 번잡하지 않고, 쾌적한 힐링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역할상이 필요하다.

(주)세정파트너스가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로 알고 있다.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성공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저희 (주)세정파트너스가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자로 본격 착수가 결정되면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따라서 용인시청 앞 노른자 땅 위에 위치한 역삼지구가 개발되고 있는 주변 조건, 즉 시청, 동부경찰서, 세무서 등이 몰려있는 용인행정타운과 밀접한 배후지역이라는 점을 활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용인시청이나 용인대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용인 역삼 지구는 지난 2019년 8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서, 69만평방미터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장점을 이용하여 혁신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시원을 만들 계획이다.

이러한 추진과정에 용인시 발전 및 경제도시로서의 용인을 구축하는데 일조를 하겠다.

그동안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오랫동안 난항을 겪어왔다. 이러한 단점들이 사업성 공에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겠는가?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새롭게 정리해서 저희 (주)세정파트너스가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저의 주장은 오히려 만용이 아니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저희 (주)세정파트너스는 이미 체비지의 가압류, 가처분 등의 해소를 위해 가압류 채권자인 KB증권과 현대차증권으로부터 대출 채권을 인수했고, 이

같은 조치로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 조합측에 정식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성공되면 어떤 형태의 신도시로 탈바꿈이 되는지?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상업, 업무용지 12만 6천평방미터, 복합용지 5만 7천평방미터, 주상복합용지 19만 평방미터, 공공시설용지 31만평방미터가 개발될 예정이고, 주상복합용지 5,256세대의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1만 4천여 명의 주민들이 입주하게 된다.

현재 (주)세정파트너스는 용인시 관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동안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투자한 자본과 열정만으로도 그만큼 호평을 받을만 하다.

그렇다면 (주)세정파트너스는 어떻게 철용성 같은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을까? 그 배경을 이해하자면 우선은 (주)세정파트너스의 역사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동안 (주)세정파트너스 권영안 회장은, 냉혹하기만한 시행산업 업계에서 패배라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실패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게도 용서를 하지 않는다. 실제로 시행을 위해서 지금을 만들고, 지금을 투자하면서 입주민, 즉 조합원들에게는 가능한 부담이 가지않는 방법들을 구상하고,그를 또 실천해냈다.

이번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부분에서도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사실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구구한 역측들이 많았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신용이 급전직차로 추락할수 있는 위험성이 없지 않았다. 이같은 불신들을 일거에 불식시키고, 해소한 당사자가 바로 (주)세정파트너스 권영안 회장이다. 특히 (주)세정파트너스의 권영안 회장은 현재 시행업계의 새로운 전설이 되고 있다.

다른 지역도 아닌 용인지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번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야망을 품은 권영안 회장은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권영안 회장은 건설산업의 험지라고 말하는 시행사업을 경영하면서 (주)세정파트너스만의 이익을 고집하지 않았다. 새롭게 입주하는 조합원들의 사정을 살펴서 배려했고, 시공사,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관계 유지로 권영안 회장의 경영인으로서의 신념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제 치열한 한판의 경쟁을 남겨놓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역정에 더하여 현대와의 협력발전 방안모색, 채권 금융기관과의 공신력 담보 등이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성공을 재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감도. (사진 출처 : (주)세정파트너스)

탐방산행 **수리산(修理山)**



변산바람꽃



수리산 할미꽃

시민 가까이 있어 더 친근한 안식처

수리산(修理山)의 지명유래에 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다. 산의 바위가 마치 독수리와 비슷하여 수리산이라 했다는 설, 신라 진흥왕 때 창건한 수리사(修理寺)로 인해 수리산이라 했다는 설, 조선시대 때 어느 왕손이 수도하여 수리산(修李山)이라고 했다는 설 등이 그것이다. 일명 '견불산(見佛山)'이라고도 한다. 수리산은 광주산맥을 구성하는 산지 중의 하나로 군포시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태을봉(489m)을 중심으로 남서쪽에 슬기봉(451.5m), 북서쪽으로 관모봉(426m), 남서쪽으로 수암봉(395m) 등과 같은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봉우리 및 절벽은 대체로 규암이고 계곡지대에는 풍화에 약한 흑운모호상 편마암이나 안구상 편마암이 많으며 부분적으로 백운모 및 흑운모 편암이 협재되어 있다. 숲의 상층부는 낙엽활엽수로서 굴참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가 우점하고 있고, 상록침엽수로는 소나무가 일부 지역에 소규모로 분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리산에서 나타나는 포유류는 종류와 개체수가 비교적 적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두더지, 멧토끼, 청설모, 들개, 너구리, 족제비 등이 서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수리산은 안양시, 군포시, 그리고 안산시 경계에 있는

산으로 능선을 따라 여러 산행 코스를 이루고 있으며, 200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세 개의 암봉은 수도권 남부의 조망대가 되어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와 수원시가 보이고 시계 거리가 아주 좋을 때는 40km 이상 떨어진 인천 앞바다까지 훤히 다 보인다. 봄이 오기 전에 노란 복수초가 차가운 눈을 뚫고 피어나고 겨울이 채 가지지 않은 봄이라고 부르기에 좀 이른 봄날 바람을 이기며 변산 바람꽃이 청초한 얼굴을 내민다. 또한 3월이 되어 따뜻해지면 청노루귀가 따스한 햇살을 받고 하늘거리며 등산객들에게 기쁨을 준다. 수리산은 또 진달래와 철쭉이 많이 피는 이른 봄 꽃구경으로 시작해서 겨울 하얀눈이 산을 덮어도 능선의 곡선이 아름답워 사시사철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수리산에는 태을봉과 슬기봉, 수암봉의 삼봉이 우뚝 솟아 등산객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지표가 되어 주고 있는데 태을봉과 슬기봉은 군포시에 수암봉은 안산시에 위치해 있으며, 수암봉에 올라서면 안산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수리산을 관통하는 서울외곽도로가 등산객들의 눈과 가슴을 시원하게 해준다. '산의 형상이 독수리가 치솟는 모습'이라 하여 수리산

으로 불리며 신라 진흥왕 때 창건된 수리사가 있다. 안양시 만안구청 뒤편 기슭엔 삼림욕 코스도 있어 인근 주민들의 좋은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다. 연간 140만 명이상 이용 한다. 북쪽 골짜기에는 천주교의 성지인 수리산 성지가 있다. 최경환 성인을 기념하는 수리산 성지에는 신도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해놓은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놓은 비탈길 순례 코스와 매우 작은 성당이 있고, 주말에는 순례자를 위해 미사를 한다. 특이한 것은 집전하는 신부가 신도 쪽이 아닌 벽에 붙여 놓은 제대를 보고 하는 구식 미사 전례를 집전한다. 지금은 쓰지 않는 천주님이라는 용어로 집전을 하는데, 과거의 전통을 되새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수도권 전철 1호선과 4호선을 이용해 갈 수 있다. 물론 수리산역은 이 산의 이름을 딴 것이다. 접근성이 좋은 곳은 1호선 안양역 하차 마을버스 환승 병목안삼거리 하차 도보, 명학역 하차 만안구청 방향 도보 이용, 4호선 수리산역 하차 도보, 대야미역 하차해 도보를 이용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김순철 기자 ash1931@naver.com

신/간/안/내

'몸'과 '마음'을 깨우는 자연치유력

기치유는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바꿀 것이다.

기치유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기치유는 육체뿐 아니라 정신에도 깊이 관여하여 우리 몸을 이롭게 해준다. 기치유는 종교와는 무관하며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나이,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작용하며 심지어 동·식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다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듯이 일정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처럼 한번 배우고 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기치유를 할 수가 있다. 예전에는 기치유가 특별한 능력자나 오랜 수련을 한 사람만 가능할거라는 착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앞에서 말했듯 다른 공부와 별반 다를 것이 전혀 없다. 서구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기치유가 성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암 병동에서 일정기간의 기치유를 공부한 간호사분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기치유에 필요한 부분들을 기본에 충실하면서 많은 것들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기치유를 모르는 분들이더라도 이 책을 보면서 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책에서처럼 따라 하기만 하면 바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지관 지음 / 부크크(Bookk) 펴냄 / 값 14,000원

이지관치유연구소
 건강컨설팅 / 원데이교육 / 기업체출강
 통증관리 / 수기요법교육

| 문의 | 010-2304-1075
<https://momplus777.modoo.at/>

건강과 웰빙의 대표음식!

영암우수 농·특산물

청정지역 황토에서 충분한 일조량과 맥반석 물로 재배된 영암농특산물은 친환경농특산물로 품질과 맛이 월등합니다

칼럼



다시금 생각하는 '나의 언론생활 30년'을 말하다



송원기 (본지 회장)

나의 기자로서의 궤적, 어언 30년여가 되어옵니다. 언론인으로서 역사와 함께 경영인으로 지탱하여 왔던 지난 세월 또한 짧지않은 압니다.

비록 화려하거나 성대하지는 않더라도 '연탄신문'이라고 일컬었던 시절에 언론 통폐합을 지켜보았고, 군사정권의 종식을 바라보았으며, 민주화를 열망하였던 3김의 시대 주역들의 종착역도 아직은 나의 머릿속에 남아 있기에 지금 현재도 일간지 <한민일보>와 월간지 <서울포커스>를 지속적으로 발행을 해오면서, 집대성으로서의 역사를 말할 수 있었고, 그러한 발행의 역사가 저에게는 마치 진정한 언론인으로서의 문을 여는 열쇠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간의 발행되어진 면면의 글들을 보면서 주옥같은 것이라고 자화자찬 할수는 없지만 그 당시의 주제나 의도는 그 시대성의 당위를 말했던 시의적절함과 계몽으로서의 수준높은 글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발행되어진 수천여년 호의 신문과 잡지를 보면서 저의 손때가 묻지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값진 것이었고, 소중한 것들이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 시대의 난맥상을 꿰뚫어 보고 국가의 미래, 사회의 비전을 투시해 볼 수 있는 혜안력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음을 새삼 묵도하면서 '아! 이것이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절절함을 마음속에 새겨놓고는 아직은 언론을 다 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부족함을 일깨워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세상에 글쟁이로 선을 보게되던 수십년 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올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부디의 교양적 가치가 성숙되어 있음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각성 자체만으로도 성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고 가는 자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사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언론의 정도를 알았다는 것이고, 언론 본연의 소명이 어떠한지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감히 '용기'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떠한 난관도 헤쳐갈 수 있는 '극기'라는것도 마음속에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 나의 여기까지 오는 길에는 나 혼자만의 성과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나의 사랑하는 선배들이 있었고 동료. 후배

들의 고단함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숨겨진 진실은 나와 함께 평생을 동반할 사랑하는 아내의 응원과 자식들의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간과할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책'에는 팔자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팔자가 있는 것이라면 운명 같은것도 있게 마련이어서 지금까지 무탈하게 영속되어왔다는 것은 제가 주도하는 <한민일보>와 <서울포커스>의 팔자는 꽤나 괜찮은 운명을 지니고 출범하지 않았나 하는 통속적인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민일보>와 <서울포커스> 독자. 제위 여러분!

그동안 <한민일보>와 <서울포커스>의 창간 당시를 가름하여 보면 수많은 글들이 수록되어 왔지만 글마다의 시대가 바뀌었고, 또한 글의 필자들도 이미 운명을 달리한 선배들이 있는가 하면, 수습기자로 입사했지만 지금은 어엿한 중견 언론인으로 자리를 잡은 후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한민일보>와 <서울포커스>를 경유해간 언론인들의 족적은 파란만장함 그 자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에서야 깨달아 보는데, 왜 구태여 언론이어야 했는지? 언론이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언론인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울수는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할 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이제는 과장되지 않은 절제된 글로 담백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솔직한 언론으로 성장, 발전시킬 것입니다. 또한 <한민일보>와 <서울포커스> 필자들이 그동안 써온 글들은 하나의 '역사서'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래서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론인이 전체를 조망하고 갈때 '일회일비'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한때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글을 쓰려할 때 주저하기도 했으며, 언론이 탄압되던 그 세월을 생각할때는 슬픔으로 기억되어진 것들을 지워버리고만 싶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처절하게 당하고, 난후에 밀려오는 고독감은 절망을 불러오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절망과 희망, 희망과 절망을 수십번, 아니 수백번을 갈고잡고 갈무리하면서 지내온 나의 언론생활 30여년을 뒤돌아 볼 때, 그래도 우리의 글을 읽고 격려해주는 '독자'들이 있어서 행복했다는 지극한 사실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치관 교수의 기(氣) 이야기

“기치유가 도대체 뭐야!”

나에게 도움이 될까?



우리가 아플 때 일차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나도 모르게 손을 통증부위에 올리는 것이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우리는 치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몸에는 외부의 자극에 대항하며 항상 일정한 상태로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보통 의학에서는 '항상성'(Homeostasis)이라고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자연치유력'이라고도 하며, 이치유력을 활용하여 몸속의 면역력을 올리고 동시에 질병을 치유하기도 한다. 이미 서양의 의학자들에 의해서 기치유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얻게 되는 능력임을 입증하였다.

1975년부터 접촉치료라는 이름으로 뉴욕대학교 간호학과와 정규학위과정으로 인가를 받았고, 유럽의 주립대학병원에서는 정식으로 치유과정이 있을 정도로 대중화 되어 상당히 객관적인 이론과 임상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현대의학의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각종 질환 치유에 보조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21세기 새로운 대체의학이라 평가받고 있다.

'기(氣)'란 동양의 고대 및 중세 철학에서 세계의 물질적 시원을 표시한 개념으로 크게는 우주 만물의 시원으로서 자연계, 인간, 하늘, 땅, 그 밖의 모든 사물의 발생 발전 소멸의 작용력이며, 작게는 모든 생명체가 호흡을 할 때 나오는 기운 또는 생활 활동하는 힘이나 원기, 정기, 생기, 기력 등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주변에서 '기(氣)'라고 하면 웬지 부담감이 생기거나 미신적인 요소가 많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쉽게 접하는 빈 공간 안에 가득하고 우리가

조금도 쉬지 않고 호흡하는 공기, 등장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연예인들의 인기, 어른들이 말하는 "수저 놓으면 죽어"의 곡기라고 하는 곡식의 기운을 생각한다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정리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예로부터 일상의 생활 속에서 기(氣)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써 오므로써 '기(氣)'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고 있다. '기'는 힘이고 에너지이며 파장이다. 실제 생활 속에 쓰이는 단어를 예로 들어 기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그 외에도 '기를 꺾는다', '기가 센 사람이다', '기가 막히다', '기절했다', '기분이 나쁘다'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언어생활 이외에 우리가 직접 체험하거나 보고 느낄 수 있는 기를 보면 자석 등의 N극과 S극이 상호 작용하는 힘이나 해, 달, 지구 및 우주계(은하계)의 인력이나 지구의 중력 등을 기(에너지)의 현상이라 하겠다.

생물은 물론 무생물에도 분자, 원자, 중성자 등의 움직임이 있다. 그 움직임과 여기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와 파장이 기(氣)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역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오감(五感) 이상의 감각, 쉽게 말하자면 말 그대로 기를 느끼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 자연에 퍼져 있는 기나 타인의 기(氣) 등 모든 기(氣)들에 정신이 감응하는 능력이며 나아가서는 기감을 바탕으로 다른 초능력도 개발할 수 있다.

보통 명상이나 기 수련을 통하여 기감을 터득하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다. 간혹 기도나 묵상을 통해서도 자각하게 되기도 한다. 아무튼 이 기감을 누구나 조금만 집중하면 느낄 수 있는 감각이지만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다른 특이능력들을 개발하고 키울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땅속을 보지 않고도 수맥이 지나가는 것을 감지하고 아픈 사람에 몸의 이상부위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 등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병원에 가서 오직 의사에 의해서 약이나 수술 등에 의해서 치료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며 본인 내부에 자연치유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낸다는 사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자신 내부의 자연치유력을 키우고 활용해서 건강한 삶을 이어갔으면 한다.



이지관

- 이치관치유연구소 소장
- (기치유의 비법) 저자



서울을 바라보거나 시민을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금융그룹

함께하는 든든한 금융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기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극복했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내일을 준비할때
 우리의 희망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 지원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